# "동심은 불심… 누구나 갖고 있지요"

## 몽당연필 고집하는 '아동문학 거인' … "다음생엔 출가"

## 석주 스님 어린이 포교 원력 기리며 보문사에 추모비

시월의 서른 하룻날,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온 대지를 적신다. 곱게 물든 단풍잎들도 비처럼 후드득 떨어져 내린다.

이런 우중에도 석주 큰스님의 열반 4주기를 맞이하여 200명이 넘는 대중이 아산시에 위치한 보문사(주지 송운스님)에 모였다. 사람들은 '평생을 종단 개혁과 역경사업과 어린이 포교를 위해 헌신'했던 석주 큰스님에 대한 행적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한국불교아동문학회'가 건립한 '석주 스님 추모비'에 대한 제막식을 봉행하였기에 더욱 뜻 깊은 날이었다.

이곳 보문사에서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으로 있는 신현득 선생님을 만났다. 사람들은 작은 체구의 신현득 선생님을 '동시문학의 거인' 이라고 부른다. 칠십이 훨씬 넘었다는 신 선생님은 얼굴 가득 소년 같은 풋풋한 웃음을 지니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헌신하신 석주 큰스님의 높은 뜻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고자 회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석주 스님은 1965년에 칠보어린이회를 창립하여 어린이 합창무용단과 어린이 합주단을 창단하여 그림잔치, 노래잔치, 글잔치로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셨어요. 또한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총재로 전국사찰에 어린이 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문학상 기금으로 삼천여만 원 정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 마련해 주신 기금으로 25회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국불교아동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불교아동문학이 존재하는 것은 석주 스님의 큰 원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선생님은 <어린이 팔만대장경>등 불교 동화집을 열권 넘게 펴냈는데 "석주 큰스님께서 부처님 경전은 동화의 광맥이므로 아동 문학인들이 작품으로 개발해 줄 것을 부탁하신 영향이 크다"면서 스님을 그리워했다.

신선생님은 안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상주에서 오랜 기간 교편생활을 하면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아동문학 동아리를 만들었다.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문구멍>으로 등단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아동문학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 얼마 전 조선일보 '한국인의 애송동시'에 소개되었던 '문구멍'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빠꼼 빠꼼
문구멍이
높아간다
아가 키가
큰다

신선생님의 일생(一生)은 환한 웃음으로만 채워졌을 것 같은데 견디기 힘든 고초도 많이 겪었단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가 소년가장노릇을 했어요. 방아를 찧어야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된장도 담그고,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했던 기억만이 남아 있어 지금도 그 고통이 잊혀지지 않아요."

1961년 첫 동시집 <아기눈>을 펴냈다. 그때 전 재산이 1만원이었는데 그것을 몽땅 털어서 출판비에 충당했다고 하니 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신선생님은 반백년의 세월동안 문학 활동을 해오면서 스무 권이 넘는 동시집을 비롯하여 여러 권의 불교설화집과 동화집을 펴냈다. 아동문학을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아동문학상>, <소천아동문학상>, <방정환 문학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60년 초에 펴낸 <고구려의 아이>는 겨레의 근원을 노래한 동시집으로, 오랫동안 필명으로 '고구려의 아이'를 사용할 만큼 애착을 가진 시집이기도 하다. 그때는 국수주의라는 비판도 있었단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우리가 남북통일 후에 '요동회복운동'을 내세울 것을 우려하여 고구려 역사를 자기들 역사에 편입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생각할 때 예지력을 지닌 작품들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신선생님은 강대국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20세기의 죄악'으로 명명하였고, 참으로 많이 분노하고 가슴 아파 하였다. 분단의 슬픔과 아픔을 <통일이 되거든 우리>, <나뉘어진 나라의 깃발> 등 여러 권의 동시집으로 녹혀냈다.

"종교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도 오늘날의 세계분쟁을 보면 자기 신을 지키기 위한 종교전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불살생을 첫 번째 계행으로 삼고 있으며, 불교로 인해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없습니다."

동시의 테마들이 주로 계절 감각이나 어린이 생활에만 치우쳐 있는 것에 반해 신선생님은 그런 테마들을 아우르면서도 역사의식과 분단된 조국까지도 소재로 다루고 있기에 동시는 연약하다는 고정관념이 깨어졌다.

신선생님은 아직도 모나미 '0.7 볼펜' 자루에 끼워진 몽땅 연필을 양철 필통에 한가득 넣어 다니신다. 연필을 깎을 때의 은은한 목향(木香)과 종이 위에서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신선생의 시심을 일깨워 줄 것 같다. 칠십을 넘기신 그 연세에도 동심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비결을 물었다.

"저는 동심은 곧 불성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가장 순수한 어떤 알맹이와 같아요. 누구나 다 동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순수한 마음에 자꾸 때를 묻혀서 더러워진 것이지요. 자신이 노력한다면 동심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시 수준은 세계 제일이란다. 신예 작가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쓰고 있다면서 동시를 많이 읽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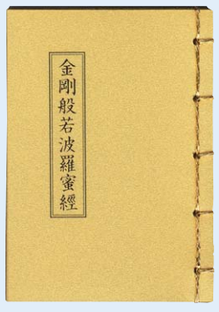
어딜 가나 회색빛 법복을 차려입고 나서는 신선생님은 "출가하여 스님 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 원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다음 생에는 꼭 출가하여 수행자로 살겠다는 원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시험에 대한 아이들의 중압감을 덜어 주려고 썼다는 <부처님도 시험봤다>라는 동시 일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부처님도 시험 봐서 된 거야/보리수 아래에서 6년 좌부동/하루에 깨알로 세 알 씩을 드셨지/이것이 시험이었어…'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